

수능 국어 문법, 4장으로 끝!

단어의 구분

2어(형태): 불변어, 가변어(용언, '서술격 조사 ~이다')

5언(기능): 용언, 체언, 수식언, 관계언, 독립언

9사(의미): 동사/형용사, 명사/대명사/수사, 관형사/부사, 조사, 감탄사

인칭 & 재귀

인칭 대명사: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

ex) (아내가 남편에게) "당신, 오늘도 수고했어요."

(아들이 아버지에게) "그것은 저희가 할게요."

재귀 대명사: 혼잣말하는 듯한 어투

ex) (아들이 홀로) "아빠는 당신의 책을 소중히 하셨다."

(아버지 홀로) "자식들은 저희밖에 몰라."

미지칭 & 부정칭

미지칭: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

ex) "거기 누구세요?"

부정칭: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

ex) "누구든 내게로 오라."

수사 & 명사

ex) "첫째, 손발을 우선 씻어라. 둘째, 밥을 먹어라."

→ 서수사

ex) "네가 바로 선생님 덕의 첫째로구나." → 명사

수사 & 수 관형사

ex) "볼펜 하나를 빌려주세요." → 수사

ex) "고양이 한 마리를 기른다." → 수 관형사

사동사 & 피동사

사동사: '주어'가 '무엇'에게 행동을 시켰을 때

ex) "지수가 지구본을 돌렸다."

피동사: '주어'가 '무엇'에게 행동을 당했을 때

ex) "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."

동사와 형용사의 구별

1.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(는/ㄴ)를 쓸 수 있으면,
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

ex) "이제 아침이 밝는다." ex) "조명이 너무 밝는다."

2. 관형사형 어미(는)을 쓸 수 있으면,
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

ex) "저기서 달리는 사람이 누구니?"

ex) "저기 예쁘는 꽃이 있다." → 빨간 글자는 틀린 표기

3. 명령형 어미(-라), 청유형 어미(-자)를 쓸 수 있으면,
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

ex) "너는 저기에 앉아라." "우리 모두 앉자."

ex) "너는 이제부터 작아라." "우리 모두 작자."

4. 의도나 목적의 연결 어미(-려고, -러)를 쓸 수 있으면,
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

ex) "밥 먹으려고(=먹으러) 식당에 갔다."

ex) "예쁘려고(=예쁘러) 미용실에 갔다."

'있다'와 '없다'의 동사/형용사 구분

동사로 쓰일 때: 한 장소에 머물고 있음을 표현

ex) "나는 지금 백화점에 있다."

ex) "앵무새가 새장 안에 없다."

형용사로 쓰일 때: 존재나 소유를 표현

ex) "나한테는 책과 공책이 있다."

ex) "주머니에 땀 한 톨 없다."

연결 어미(대등적 & 종속적)

대등적: '-고', '-(으)면', '-지만'

ex) 밥을 먹고 물을 마시다 = 물을 마시고 밥을 먹다

→ 순서를 바꿔도 됨

종속적: '- 서/어서', '-고서', '-(으)면', '-(으)니'

ex)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≠ 배가 불러서 밥을 먹다

→ 순서를 바꾸면 안됨